

“8월17일 쉬자”...코로나 피로 달랠까

올해 휴일, 작년비 이틀 적은 115일 · 코로나 피로감 누적

정부 수립 후 역대 60번 지정...2017년 10월2일 최근사례

정부가 8월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지친 국민과 의료진에게 휴식을 주자는 의미와 휴일을 통해 내수 소비를 늘리자는 의도가 담겼다. 8월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지난 2017년 10월2일 이후 약 3년 만이자 정부 수립 이후 61번째 임시공휴일이 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8월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에서는 조속히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가 어렵고 많은 국민과 의료진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계시다”며 “특히 올해는 법정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날이 많아 전체 휴일 수도 예년보다 적다”고 강조했다.

올해 법정공휴일은 66일로, 지난해(67일)보다는 하루 많다. 하지만 실제 휴일 수는 115일로 지난해(117일)보다 이틀 줄었다. 삼일절,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이 모두 주말과 겹친 탓이다. 지난 2월, 3월, 6월 모두 휴일이 없었다.

정부 수립 이후 임시공휴일은 총 60차례 지정됐다. 8월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두 번째이자 역대 61번째 임시공휴일이다.

최근 임시공휴일은 지난 2017년 10월2일이다. 당시 10월3일은 개천절, 4~6일은 추석연휴(6일 대체휴일), 9일은 한글날로 주말을 포함해 최장 10일간 황금연휴를 보낼 수 있었다.

19대 대통령 선거일(2017년 5월9일), 2016년 5월6일, 2015년 8월14일(광복 70주년) 등도 임시공휴일이었다. 제24회 서울올림픽개최일(1988년9월17일), 2002한일월드컵경기대회 폐막식 다음날(2002년7월1일) 등도 특기할 만한 임시공휴일이었다.

임시공휴일의 경제 효과는 연구기관마다 다르게 분석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2015년 8월14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효과가 전체 소비지출액 1조9900

억원, 생산유발액 3조8500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인구의 절반인 2500만명이 임시공휴일에 쉬고 1인당 8만원씩을 쓴다고 가정한 결과다.

모든 관공서와 취업규칙·단체협상을 통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기로 정한 기업체는 임시 공휴일에 쉬지만, 그 외 민간기업은 자율로 결정한다.

문화관광부 산하 문화관광연구원은 지난 2017년 임시공휴일이 하루 늘어나면 19조원이 넘는 경제효과가 발생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민간소비 증가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11조6427억원에 △휴식 후 생산유발효과(5조4892억원) △근로자 만족도 가치(2조2724억원)를 더한 것이다.

이번 임시공휴일의 경우 실제 경제효과와 별개로 예년보다 적었던 올해 휴일과 코로나19에 따른 피로감 등을 고려하면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할 것을 보인다.

“지역경제 무너지면...” 광주시, 소상공인 살리기 ‘총력전’

코로나19로 직격탄...자금지원 · 소비촉진 등 입체적 지원 확산자 방문점포도 지원

광주시가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 살리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

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지원, 소비촉진, 지원사업 접수 대행, 점포개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제적

이고 입체적인 대책을 시행중이다.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광주 지역경제가 무너진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하고 나선 것이다.

시가 펼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융자지원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운영 △공공상권 특례보증 자금 지원 △지역화폐 광주상생카드 운영 △빛고를 소상공인 자립사업 △금융 소비자 피해예방 지원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 재개장 지원 등 전 분야에 총 망라돼 있다.

우선 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통해 저비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례보증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기업에게 담보 없이 시가 1년간의 대출 이자와 보증수수료를 대신 부담할 정책으로 7월 현재까지 1만 8553건에 5118억원의 보증서가 발급됐고 이 가운데 506.3억원의 대출이 실행됐다.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 자금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쓰일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지역화폐 광주상생카드도 폭발적인 판매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 격려 방문
이용섭 광주시장은 17일 오후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격무에 시달리는 보건소 관계자 등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광주광역시 제공

■ 세무기장 · 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한정승인공고

사 건 번 호 : 대전가정법원 2020년단875 상속한정승인
사 망 자 : 박춘호 (650402-1573311)
최 후 주 소 :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680번길 62-16, 304호 (구암동, 지택빌라)

위 망 박춘호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할 신고기간(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0년 7월 20일

공고인 : 조차남
주 소 : 여수시 동산9길 3-1(공화동)
한정승인수리일 : 2020년 7월 13일
공고기간 : 2020.7.20 ~ 2020.9.20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므로,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구분	고소득층	중소득층	3분위	2분위	저소득층
급여비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비율	1.1배	1.7배	2.1배	2.7배	5.3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동구 계림1동, 이웃 돌보고 상가 웃는 따뜻한 훈방

광주 동구 계림1동은 ‘따뜻한 훈방’ 사업으로 취약계층 돌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일거양득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광주지사(지사장 이남웅)에서 사업비를 전액 후원해 진행되고 있는 이번 사업은 대상자를 확대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따뜻한 훈방’은 취사가 어려운 숙박시설 거주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에 정기적으로 반찬을 제공해 끼니걱정을 해결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이다.

서구상록도서관, 온라인 슬기로운 집콕 글쓰기

광주 서구 상록도서관이 코로나19에 대응해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 ‘슬기로운 집콕 글쓰기 강좌’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도서관 방문이 어려워진 주민들을 대상으로 독서 문화 육구를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8월 4일부터 8월 25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총 4회차에 걸쳐 ‘엄마의 글쓰기’, ‘부모와 아이의 소통 일기’ 등을 쓴 권귀현 작가의 실시간 화상 강의로 진행된다.

강좌는 글쓰기를 바탕으로 한 특강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강의 플랫폼 ‘Zoom’ 앱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작가와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개소 1년 광주 남구 7979 센터...취약계층 버팀목

광주 남구는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여러 생활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행복한 복지 7979 센터’가 개소 1주년을 맞았다고 19일 밝혔다.

‘행복한 복지 7979 센터’는 김병내 구청장의 공약사업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서비스를 시작해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했다.

지난달까지 하루 평균 56건, 1년 동안 1만6789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분야별로는 생계와 관련된 긴급지원 분야가 4130건(24.5%)으로 가장 많았다.

북구 건국동, 건국동 · 신용동으로 분동

광주 북구는 인구 5만명을 돌파한 건국동이 오는 27일 건국동과 신용동으로 분동된다고 19일 밝혔다.

북구 건국동은 지난 2013년 건국동과 양산동으로 나뉘고 후 신용동 중심의 택지개발로 인구가 새로 유입되면서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지난해 10월 도·농 혼잡지역의 분동기준인 5만 명을 넘어서면서 현지 실태조사, 지역구 의원 간담회, 온라인 및 현장 주민설명회 등 본격적인 분동 절차를 진행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신용동은 면적 1.8km에 인구는 약 3만 명이 될 것으로 보이며 기존의 건국동은 26.4km면적에 인구는 2만2000명이 된다.

방역 일선 광산구 공무원에 시민 격려 이어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광산구 공무원들을 위한 시민들의 격려가 이어졌다.

16일 베비에르 제과점 마곡천 대표가 아침 광산구청을 찾아 출근 중인 공무원들에게 우리밀빵 1,000여개를 나눠줬다.

같은 장소에서 수완동 주민자치회 이철송 회장은 장미꽃 1,000송이를 마련해 건넸다.

이날 오후에는 광주목련로타리클럽 기념품 회장과 회원들이 간식 70인분을 광산구 선별진료소와 상왕실에 전달했다.

임형택 기자

한국연로친용재단
Korea Elderly F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어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워라밸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예복님께서 재민한 슬로건강입니다.